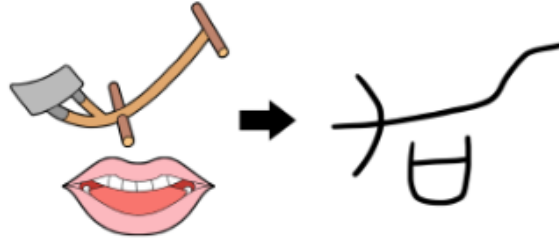


5
-
1

회의문자 ⓘ



加

더할 가

加자는 '더하다'나 '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加자는 力(힘 력)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力자는 농기구를 그린 것으로 '힘쓰다'라는 뜻이 있다. 加자는 이렇게 '힘쓰다'라는 뜻을 가진 力자에 口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 의미는 '찬미하다'나 '칭찬하다'였다. 그러니까 加자는 농사일에 힘쓰는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후에 농사일을 통해 생산물이 증대되는 것에 빗대게 되면서 '더하다'나 '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𠂔(악기이름 주)자가 더해진 嘉(아름다울 가)자가 '찬미하다'나 '칭찬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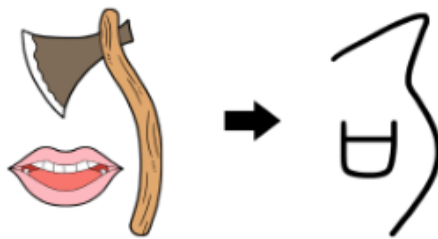
소전

加

해서

5
-
2

회의문자 ⓘ



可

옳을 가:

可자는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可자는 곡괭이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可자는 본래 농사일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자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농요(農謠)이다. 그래서 可자는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의미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可자가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입을 벌린 모습의 欠(하품 흠)자를 결합한 歌(노래 가)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𠂔

갑골문

可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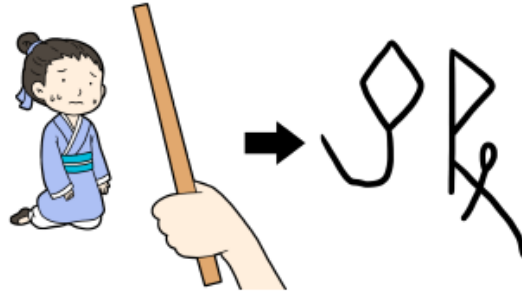
𠂔

소전

可

해서

회의문자①



改

고칠
개(·)

改자는 '고치다'나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改자에서 말하는 '바꾸다'라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改자는 己(자기 기)자와 攴(칠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改자의 갑골문을 보면 巳(뱀 사)자와 攴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巳자는 사전상으로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는 태아를 그린 것이다. 다만 갑골문에 쓰인 巳자는 '태아'가 아닌 '어린이'로 해석해야 한다. 改자는 회초리로 어린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고치다'나 '바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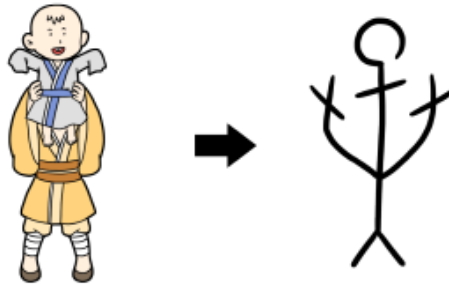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舉

들 거:

舉자는 '들다'나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舉자는 舁(마주들 여)자와 与(어조사 여)자, 手(손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舁자는 위아래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마주 들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舉자에는 총 5개의 손이 그려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舉자를 보면 단순히 아이를 번쩍 든 𠂔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부터는 다양한 글자가 조합되면서 지금의 舉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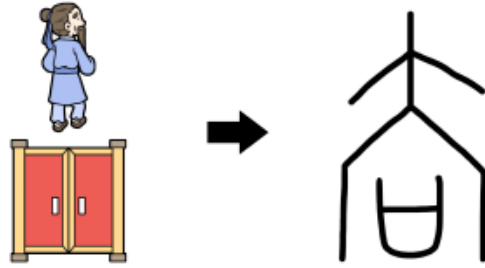
갑골문

소전

해서

5
-
5

회의문자①



去

갈 거:

去자는 '가다'나 '지나다', '내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去자는 土(흙 토)자와 厶(사사 사)자가 함께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去자는 大(큰 대)자와 口(입 구)자가 𠂇 결합한 것이었다. 去자의 갑골문을 보면 팔을 벌린 사람 아래로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口자는 '입'이 아닌 '문'을 뜻한다. 갑골문에서의 去자는 사람이 문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모양이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𠂇

갑골문

𠂇

금문

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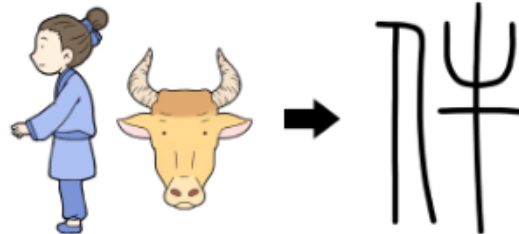
소전

去

해서

5
-
6

회의문자①



件

물건 건

件자는 '물건'이나 '사건',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件자는 人(사람 인)자와 牛(소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件자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件자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또 件자에 있는 '나누다'라는 뜻을 두고 사람(人)이 소(牛)를 토막 내어 나누는 장면으로 보기도 한다. 토막을 내는 것이니 件자에 있는 '날개'라는 뜻도 이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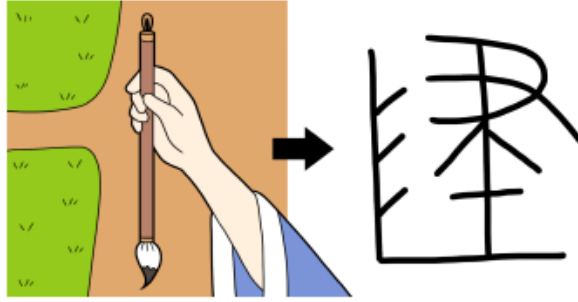
𠂇

소전

件

해서

회의문자①



建

세울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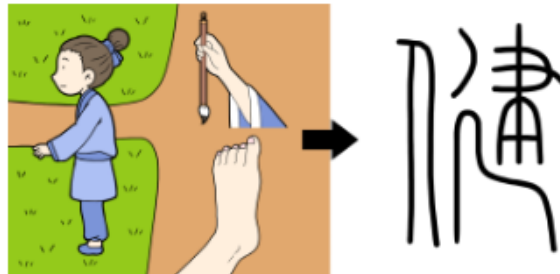
建자는 '세우다'나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建자는 廴(길게 걸을 인)자와 聿(붓 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廴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조합으로만 본다면 建자와 律(법 올)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建자가 律자와 廷(조정 정)자의 생략형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법률을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설계하다'가 본래의 의미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健

굳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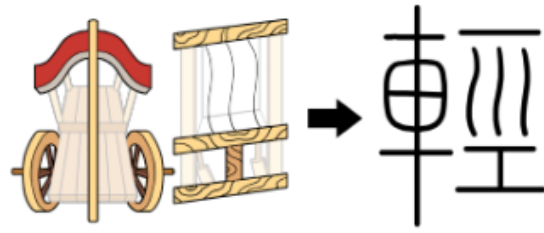
健자는 '건강하다'나 '굳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健자는 人(사람 인)자와 建(세울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建자는 길을 설계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길을 설계하다'나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 마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健자는 이렇게 '길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建자에 人자가 결합해 길을 튼튼하게 설계하듯이 사람의 몸이 '튼튼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소전

해서

5
-
9

회의문자①



輕

가벼울
경

輕자는 '가볍다'나 '가벼이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輕자는 車(수레 차)자와 甹(물줄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甹자는 방직기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방직기 사이로 실이 가볍게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甹자에 車자가 결합한 輕자는 '수레가 가볍게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輕자에서 말하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차의 중량이 '가볍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輕자는 단순히 '가볍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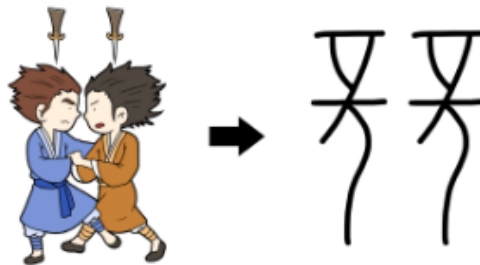
소전

輕

해서

5
-
10

회의문자①



競

다툼 경:

競자는 '겨루다'나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競자는 두 개의 立(설 립)자와 兄(만 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競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사람 인)자 위로 幸자가 𠂔𠂔 그려져 있었다. 幸자가 노예를 상징하는 글자이니 競자는 노예 둘을 함께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유희를 위해 노예끼리 서로 힘겨루기를 하도록 했다. 競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노예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하여 '다투다'나 '경쟁을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𠂔𠂔

갑골문

𠂔𠂔

금문

競

소전

競

해서